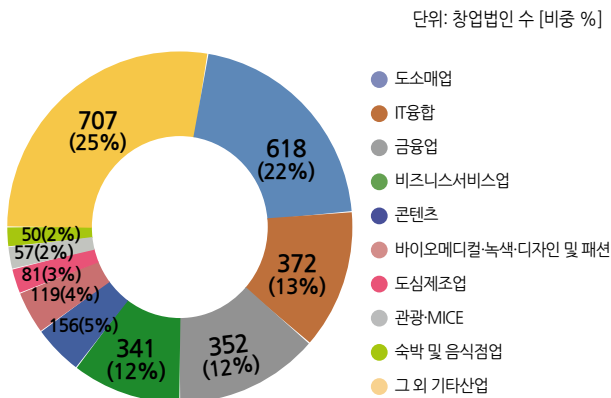


산업별 창업 동향

I 산업별 창업현황

- 2018년 8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,853개
-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618개, IT융합 372개, 금융업 352개, 비즈니스서비스업 341개, 콘텐츠 156개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 119개, 도심제조업 81개, 관광·MICE 57개, 숙박 및 음식점업 50개, 그 외 기타산업 707개가 창업
- 그 외 기타산업은 주요 9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으로 제조업(188개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187개), 건설업(105개) 등이 법인 창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

[그림 1] 2018년 8월 산업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

I 법인창업지수 증감률(전년동월 대비)

-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117.4로 (전년동월에 비해) 10.2% 증가
- 산업별로 봤을 때 IT융합 산업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콘텐츠, 금융업 등 서울 주요 산업 대부분이 급증
- IT융합(36.3%), 콘텐츠(26.8%), 금융업(24.8%)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(24.0%) 산업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비즈니스서비스업(10.0%), 도소매업(8.8%), 숙박 및 음식점업(4.2%)도 증가
- 가장 큰 폭으로 오른 IT융합은 구성 업종 중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급증
- 콘텐츠 산업은 구성 업종 중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과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이 크게 증가

- 금융업은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과 투자자문업의 법인 창업이 크게 증가
-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단기 신용서비스, 전당포, 사채(사설금융), 어음할인서비스(비은행) 등 은행, 개발 금융회사,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금융기관이 포함
- 투자자문업은 금융 컨설팅 서비스, 투자 컨설팅 서비스 등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 사업체는 투자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음
- 반면 관광·MICE(-10.9%), 도심제조업(-10.0%), 그 외 기타산업(-4.2%)은 감소
- 관광·MICE는 5~7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8월 들어 감소로 반전되었고, 도심제조업은 2월부터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
- 그 외 기타산업(-4.2%)은 6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
-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-37.0%), 건설업(-18.6%) 등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

[표 1] 2018년 8월 산업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